

깨어 기도하라 ! - 마태 26, 41 -



김한기 시몬 신부
그레이트넥 성당 주임

김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몹시 놀라셨지요? 전화로도 통화가 안되고, 연락이 안되고 해서, e-mail로 안부를 물어오신 형제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도 저와 통 연락이 안되어서 형제님께 문의한 결과, 맨하탄과 저희 성당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저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안심시켜 주셨다니 고마울 뿐입니다.

사건이 처음으로 터지던 날 9월 11일 아침 8시 45분, 저는 같은 원주교구 북미주교포사목 사제들과 함께 토론토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캐나다의 몬트리얼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미주에 나와있던 원주교구 신부님들 여섯 분이 성지순례 겸 피정 차 그 전날 토론토에 모여 일박을 했고 다음 행선지인 몬트리얼로 떠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때는 TV를 보고 있던 때가 아니었지요. 벤 차에 탑승, 오후 4시경 몬트리얼의 성 요셉 성당에 도착해서 안내를 하는 신부님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하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이 폭파되고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5만명(Fifty thousand)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8대의 비행기가 공중납치(Hijacking)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동료 사제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면서 침착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영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즉시 소 성당에서 봉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TV를 켜 순간 놀라운 사건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 맙소사! ("Oh my God")라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온 것 입니다. 이미 준비된 성지순례였기에 몬트리얼, 퀘벡 등지를 순례하고 마지막으로 동료사제 박홍표 바오로 신

(Q) MEDJUGORJE

부가 있는 런던 성당에서 목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희들의 일정을 마감하였습니다.

연일 TV와 신문을 보면서 세계적인 사건을 걱정하였고 본당으로 연락하면서 사태진전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본당에서는 그곳이나 그 부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자가 없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 국경이 차단되어 안전부절 못하고 있던 차, 금요일 용기를 내어 나이아가라에 있는 국경으로 가서 런던(London) 성당의 사도회장님의 주선으로 벤차를 이용, 간신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생전처음 겪어보는 이런 곡예와 같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미국땅으로 들어오니 한숨이 "휴!" 하고 나왔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제가 있는 본당 그레이트넥(Great neck)에 돌아오니 저녁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집으로 오기 전 트로우넥(Throghs neck) 다리에서 맨하탄을 향해 보니 연기가 여전히 뭉게 뭉게 오르고 있어 전문이 감돌도 지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다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피곤이 온몸을 적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앤서링 폰과 e-mail을 열어보니 온통 이번 테러에 대한 걱정과 안부로 가득찬 내용이었습니다. 걱정을 해주신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렸지요.

캐나다에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을 비록 늦게 알았지만 동료 신부님이 한마디로 논평하라고 했을 때 저는 "깨어 기도하라" 라는 한 귀절의 성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라" 는 주님의 말씀이 문득 제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거듭되는 메시지와
 최근 9월 25일의 메시지에서도 확인된것 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어느때 보다도 긴박성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께서는 루카복음 13장에서 당대를 떠들썩하게 만
 들었던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회개하실 것을 촉
 구하셨습니다<루가 13, 2 -50>.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
 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가 제물에 물들었던 일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 열여덟 사람이 죽은 일은 결코 희생
 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
 다.”<루가 13,5> 라고 하십니다. 실상 저는 이
 일이 있기전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지를
 순례하면서 발현 목격자(Visionary)들의 여
 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보면 가
 장 안전한 지대로 간주되는 뉴욕(New
 York)과 워싱턴(Washington) 등 미 동
 북부에 가까운 시일내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이것
 을 우리 신자들에게도 지나가는 말
 로 한번 비친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
 건이 나고 나서 저는 신자들로부터
 신부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저 자신도
 섬찟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저는 이 동
 시다발적 테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거듭되는 메시지와 최근 9월 25
 일의 메시지에서도 확인되는것 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박성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긴
 박성은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창조는 알
 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루가 12,56> 라



고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의미는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의 맨하탄, 그 중
 에도 110층 WTC (세계무역센터)는 자본주의의 꽃으로서
 현대의 바벨탑을 뜻한다고 봅니다. 모든 세계 경제가 움직
 이는 증권거래소가 붙어있는 Wall Street, 그것은 맘본주의
 (물신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허드슨강을 내려다보며,
 맨하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바벨탑
 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8시 45분이면
 모든 직장인들이 출근하여 느긋하게 아침
 커피를 즐기며 담소하고 있었던 평화롭
 고 아름다운 그 시간에 여객기 한 대가
 갑자기 이 빌딩을 내리치고 또 이어서
 다른 비행기가 같이 붙어있는 WTC
 남쪽 빌딩을 급습하였고 워싱턴의 국
 방부 (Pantagon) 건물을 공격하는 등
 동시 다발적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
 다.

테러리스트들은 철벽같은 방어의 엄
 중한 경비망을 뚫고 미국의 군사
 심장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미국은 앉아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군사력, 그것도
 또 하나의 현대의 바벨탑입니다. 이 탑
 도 결국은 헛점을 드러냈고 무너진 것입
 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가장 막강한 미국도 이렇
 게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살특공대 요원들이 문구
 용 칼(Box cutter)와 거깃 폭탄상자 협박을 가하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자살특공대의 공격은 앞으
 로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생
 화학테러(Bio-chemical Terror)의 위협때문에 불안과 공포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문검색의 강화로 교통은 마비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테러 때문에 외출 공포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미국이 이런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유독 죄가 많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협력체제 구축에 있다 할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단식하며(모든 허례허식,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만 성서를

론 이스라엘보다는 PLO를 두둔하고 세계인종차별회의에서 퇴장하는 등의 행동과 그간의 각종 국제적 분쟁과 전쟁에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 점, ABM 도교(Tokeyo) 기후협약 등의 탈퇴 등 미국의 오만불손한 태도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미국을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위엄과 권위를 살리기 이전에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아량과 여유를 보일 때 이런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테러를 기도하고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을 응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살특공대를 투입,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응징하고 자유 우방국가와 결합, UN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연합전선을 펼쳐 나가되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즉, 테러를 뿌리 뽑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우리 죄를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자주받고 이런 가운데 자신의 몸을 빵으로 주신 예수님의 성체를 정성되이 받아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 가야하겠습니다. 토마스 형제님, 바쁜 교직 일정가운데에서도 늘 가난하고 힘든 시골 교회를 찾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빕니다. 하나의 썩은 밀알되어 자신을 묵묵히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이루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씨앗이 됨을 생각할 때 늘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형제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사랑이 늘 형제님과 함께 하시기를.

- 2001년 9월 28일, 뉴욕 그레이트넥에서 김한기 시몬 신부 드림 -

“되돌아 봅시다.”

성모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1992년 4월 25일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기도와 단식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기도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구나. 기도와 단식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 시기에 사탄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속해 있음을 기도와 생활 속에서 표양으로 드러내 보여주어라.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위한 결심을 할 때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예”라고 응답한 모든 이들을 나의 아들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에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들이 평화가 부재하는 세상에서 효과적인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라. 메주고리에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여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날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로 초대하는 나의 초대에 응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91년 9월 25일

나를 도와다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모두를 특별히 기도와 회개로 초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단 한번도 없었던 그의 얼굴을 내비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죄로 유혹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내 순결한 성심이 세상의 죄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다오. 내가 하느님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나의 원의에 맞게 희생과 기도를 바쳐달라고 간절히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싶구나. 너희들의 소망을 접어두고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란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2001년 제 2차

젊은이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초대한다.”

아래와 같이 성령세미나 일정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1년 12월 28일 오후 6시부터
12월 31일 오후 3시까지
- 장소 : Catholic Conference and pormation center
109 South Madison, Dallas, TX, 75208
Tel. 214-943-6585 / 214-943-6587
- 참가자격 : 20대, 30대 청년,
미혼 및 기혼, 대학생
- 지도 : 정건석(프란치스코) 신부님 외 강사진
- 회비 : \$180 (check : payable to CRSC-SC)
Walk in \$200
- 보낼곳 : 12711 Melvern Ct. Houston, TX, 77041
Attn.:Peter
- 접수마감 : 2001년 12월 22일 (선착순 65명)
신청서 : 별도
- 준비물 : 성서, 묵주, 필기도구
미사예물, 세면도구
- 연락처 : Peter Chi : 713-466-6957
Peterchi49@yahoo.com
Sophia Lee : 713-464-5548
John Yun : 818-360-1208
Stephen Chung : 323-734-6520
- 주최 :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협조 : 남가주 청년 봉사회(KYCR)

메주고리에 다녀 온 지역 주민들 과의 인터뷰

- 1986년 1월 15일 발간 -



웨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 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번역 / 조규방 줄리엤타, 그레이트넥 본당>

나는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 곳에 다녀온 이곳 주민 두 분을 만나보았다. 이 두 분과 나는 이야기를 옮겨 적는 것으로 본 시리즈를 마감하려 한다. 질의 응답 형식을 취하는 대신 그들의 말을 그냥 서술하기로 했다. 그 편이 더 간결하고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 본 사람은 머틀비치 북쪽에 사는 짐 스토펬과 레이크 시티에 있는 성 필립스 성당의 주임신부로 계시는 실베스터 스코티 신부이다. 짐 스토펬은 북 머틀비치의 캐롤라이나 해안 골프 클럽에 속해있는 프로 골퍼이다. 그와 그의 부인 로지는 1972년부터 이 곳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1985년 11월 역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토드씨 부부와 할과 페기와 함께 메주고리에 여행길에 올랐다. 그런데 여기에는 짐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이 속해있는 교회 모임에서 가졌던 강연회에서 언급한 내용만 나는 적기로 한다. 물론 그 곳에 다녀온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제한된 지면 관계상 짐 스토펬의 이야기만 적기로 한다. 어쩌면 훗날 이 곳에 못 다 적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스코티 신부는 성 바오로 성당을 2년 반 전부터 맡아왔다. 신부가 된 지는 14년이 되었다. 나는 레이크 시티로 그를 찾아가 그와 마

주 앉았다. 그는 메주고리에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 주었다.

나는 먼저 짐 스토펬씨의 견해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난 일들은 2년 전부터 익히 듣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집회가 있던 날, 참석했던 친구를 통해서였는데 그때부터 더욱 흥미를 갖고 더욱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흥미를 가진 우리들은 그곳의 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책도 구할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6권을 찾아내었습니다."

"루르드나 파티마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읽어 본 적이 있지만 메주고리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직접 찾아가길 결정했고 마침내 1985년 10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내 개인적 느낌으로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근거가 있는 확실한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그 어떤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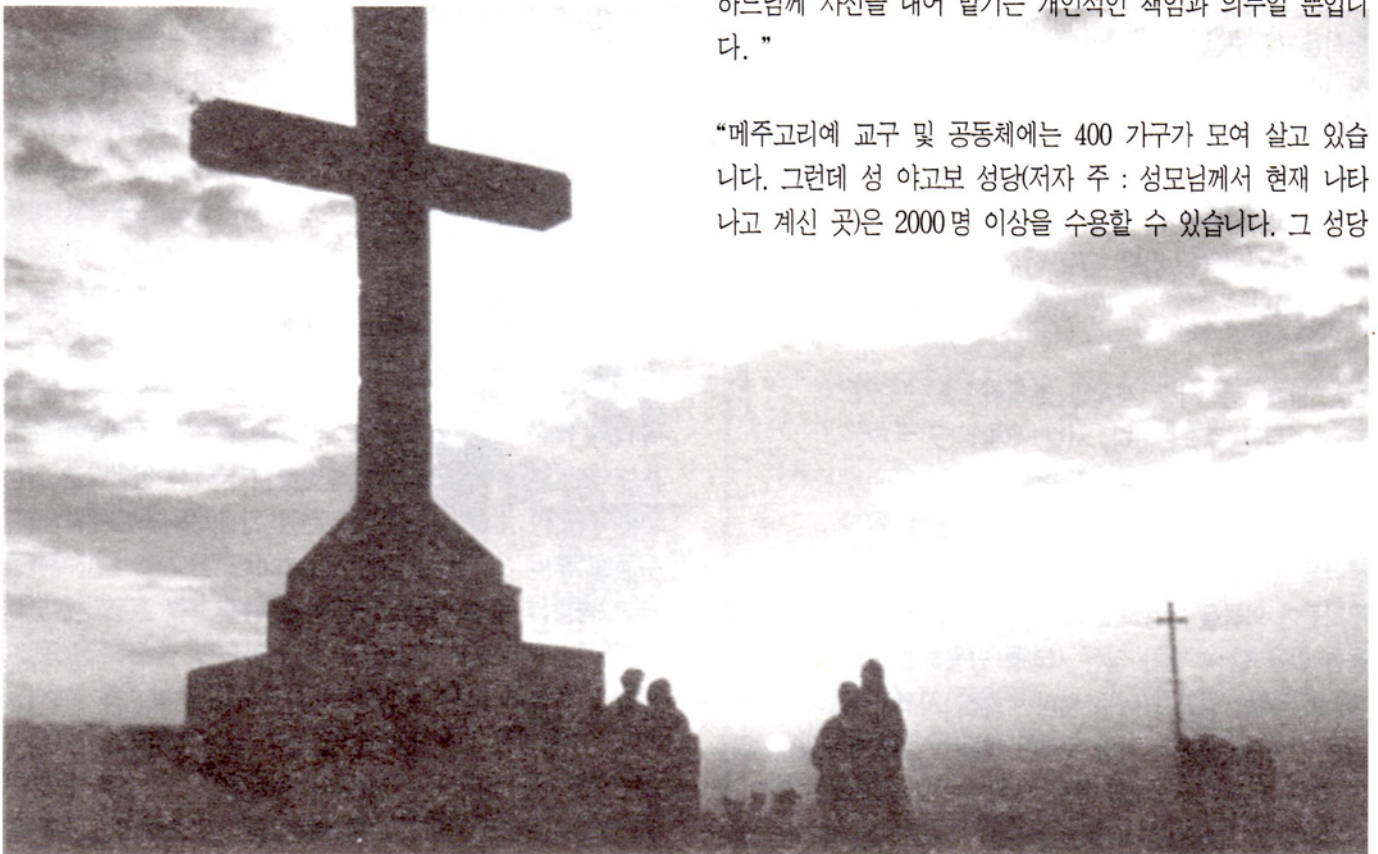
“성모님께서 그곳을 찾으신 목적은 세상을 향한 10가지 메시지를 어린 아이들을 통해 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 단식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면, 10가지 중요한 메시지(혹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메시지는 중대하게 세상을 징벌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일곱 번째 메시지는 이미 면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기도하고 단식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비밀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단식으로 그 정도가 약하게 될 수는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메시지

는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미사 때 접하는 복음서에 전부 적혀있는 것들입니다. 성모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서 내용들의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오신 것뿐이지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냥 한 작은 마을이 지금은 성지가 되었지요. 글썽,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무어라 표현해야 좋을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군요. 그곳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전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 보면,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고, 이것은 하느님께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매우 시급한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에 평화를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변화하며, 성체를 모심으로써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톨릭 신자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메시지의 목적도 그런것은 아니지요. 단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일 뿐입니다.”

“메주고리에 교구 및 공동체에는 400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야고보 성당(저자 주 : 성모님께서 현재 나타나고 계신 곳)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당



부르심을 받고

을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 완벽한 교구를 이끄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성공하신 셈입니다. 성당에서 6마일만 벗어나면 우리는 곧장 '진짜 세상' 과 부딪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모님께서서는 그 곳 성당 사람들 때문에 무척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후 5

시 45분(저자 주 : 이곳 머물비치보다 7시간 정도 빠르다) 경에 모습을 나타내시고는 3, 4 분 머무르십니다. 초기에는 20, 30분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발현이 끝나면 곧 미사가 이어지며 매일같이 어린 목격증인들은 성당에 3시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도하며 일주일에 3번씩 단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단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아주 좋고, 정중하며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서방 세계를 위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이 악물을 남용하고 너무 많은 시간동안 TV를 보며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는 종교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가짜 신 숭배와 이와 유사한 것들.... 그리고 오늘날 발달된 첨단 기술이 하느님의 도움 없이 우리들의 능력 만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라는 생각을 합니

다. (로마서 1,18-32를 참고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방식을 완벽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 세기 전에 오늘날의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베스터 스코티 신부: “1984년 10월 세계 사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출발 직전에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의 순례를 희망하는가를 물어왔습니다. 그곳은 성모님께서 여섯 명의 어린 이들에게 매일 발현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장소였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예에 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 그곳 담당 신부가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가로서, 당국은 종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부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동료 사제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또 나 자신이 수소문해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제들

의 그룹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된 나는 무척 흥분되어 있었지요.”

“우리 여행팀은 모두 110명이었는데 발현 장소를 방문한 사제단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으로 직접 가지 않고 메주고리예에서 얼마 떨지 않은 모스탈이라는 곳에 들

부르심을 받고

렸고 성직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가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수영복도 하나씩 사서 그곳 공산국가 고위층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했지요.”

“마침내, 우리가 메주고리에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은 불편했고 목지 못할 정도는 아니나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외부 연관 시설 등등의 아주 원시적인 시설이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성직자가 한꺼번에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곧 지하 사제관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는데 날씨는 더웠고 장소는 비좁아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발현하신 다음 우리들은 그 어린 목격증인들과 만날 참이었습니다. 그 때 그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는 수녀 한 분이 들어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성직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곳 지하실에 발현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기분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성모님께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대해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탁자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나와 나의 친한 동료 신부는 아이들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곧 기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들 머리위였습니다!”

“성모님 발현이 끝난 후, 아이들은 종이에 무언가 적었고 영어를 아는 수녀 한 분이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직접 우리 사제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름에 응하여 이곳에 와주어 고맙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특별히 초대된 것이요.’

“그때 우리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 위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목격증인 몇이 나와 내 친한 동료 신부를 위해 제의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시

간 내내 내 동료 신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두 가지 ‘기적’ 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메주고리에로 들어가던 버스 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하늘의 구름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하늘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름 두 조각이 모여 십자가를 이룬 것 말고는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름은 완벽한 비둘기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두 번째는 메주고리에를 방문하고 난 뒤 듀브로브닉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 곳의 아름다운 성당에 들러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모두는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있었고 몸살 기운도 있고 목도 뜨끔거리며 아팠습니다. 미사와 기도를 마치고 막 떠나려는 참에 우리 동료인 캐나다 출신 젊은 사제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형제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도 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물론 감기나 몸살기운 같은 하찮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도중에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싸더니 몸살 기운도 없어지고 목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에 남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레이크 시티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지요? 쉽게 상상하실 수 있듯이 감격으로 가득 찬 나는 이곳에 돌아오자마자 콜럼비아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를 찾았습니다. 이 멋진 감격을 기사거리로 제공했지요. 결과 말씀입니까? 그냥 나를 뻔히 쳐다보고는 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네들 반응에 상관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이니깐요.”

이것이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에에 나타나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 4부작 중 마지막이다 **M**



성모님과 함께 성서읽기

고린토 1, 2서 읽기를 위한 길잡이

고린토 : 고린토는 사도 바울로가 2차 전도여행 때 (50~52년) 실라와 함께 18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활발히 전도했던 곳입니다. 고린토는 그 당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된것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린토는 그리이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좁은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고린토는 육로로는 남북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며, 해로로는 동서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서간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상업이 번창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토는 당시에 가장 번잡한 국제 항구 중 하나였으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로마의 사람들은 동으로 여행하고 팔레스티나, 시리아, 아시아 사람들은 서로 여행하면서 이 대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유흥을 찾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구리토는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 등을 제공하였으며 수 천의 매춘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고린토는 그리이스인, 로마인, 유대인, 동방인 등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인종 박람회같은 도시였기에 인종적으로 다양한 주민들 사이에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고린토는 교통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는 윤택했으나 문화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또한 심했고, 그리스도인 절대 다수는 빈민층에 속했습니다. 바울로가 개종시킨 사람들 가운데는 사악한 자, 음란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색을 탐하는 자, 남색을 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꾼, 비방하는 자,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 고린 6,9-11 - 그가 같은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자신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불안을 느꼈을 정도였던 전도지였습니다.

고린토 1서 : 바울로는 3차 전도여행 중(53-58년경)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 에페소에서 27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전 (10) MEDJUGORJE

도하고 있을 때, 고린토 교회에 여러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편지를 보낸것이 고린토 1서입니다. 즉 고린토 교우들이 바울로파, 아폴로파, 게파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토 교우들이 몇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질문서를 작성하여 바울로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로는 이런 여러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고린토 1서의 개요

1. 서두 - 인사와 감사 (1,1-9)
2. 고린토 교회의 분열 (1,10-4,21)
 - 신자들의 분열과 일치의 세례 (1,10-17)
 - 하느님의 지혜 (1,18-2,16)
 - 복음 설교자들의 역할과 고린토 공동체(3-4장)
3. 고린토 교회 내의 추문 (5,1-6,20)
 - 근친상간의 경우 (5장)
4. 윤리문제에 대한 질문예의 답변 (7,1-11,1)
 - 결혼생활과 독신생활 (7장)
 - 나약한 이들을 위한 배려 (8,1-11,1)
5. 공동체의 예배에 관한 지침 (11,2-14,40)
 - 물려받은 전통을 충실히 지키라 (11,2-34)
 - 성령의 선물 (12-14 장)
6. 죽은 이들 가운데서의 부활 (15장)
7. 맺음말과 작별헌사 (16장)

고린토 2서 : 바울로가 고린토 1서를 발송한 다음에 고린토 교회에 거짓 전도사들이 와서 바울로의 사도직을 부인하였습니다. 바울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린토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교우들은 바울로의 반대자들에게 동조하였고 어떤 무례한은 바울로에게 심한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고린토 2,5-11 ; 7,12)

이에 바울로는 에페소로 돌아와서 몹시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2 고린토 10-13 장인 '눈물편지' 입니다. 이 눈물편지는 디도를 시켜 고린토 교우들에게 띄우고 나서 에페소를 떠나 알렉산드리아 트



**바울로가 에페소로 돌아와서
몹시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0-13 장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로아스를 거쳐 그리스 북부지역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고린도 2,12-13 ; 7,5)
마침내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우들 대부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로와 화해하기를 바라며, 바울로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교우를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로가 이 소식에 대한 답신으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낸것이 2고린도 1-9 장의 '화해편지'입니다.

고린도 2서의 개요

1. 서언 (1,1-2)
2. 바울로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1,3-7,16)
찬미와 감사 (1,3-11)
고린도 방문계획을 취소한 이유 (1,12-2,13)
사도직의 위대함과 우위성 (2,14-4,6)
사도직의 고초와 희망 (4,7-5,21)
하느님의 일꾼으로서의 생활, 권고 (6,1-7,4)
디도를 만난 기쁨 (7,5-16)
3.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8-9장)
4. 반대자들에 대한 강력한 충고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10-13장)
사도직분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 (10장)
반대자들에 대한 사도적 권위 변호 (11,1-12,13)
세번째 방문 계획 (12,14-13,10)
5. 맺음말 : 마지막 훈시와 작별인사 (13,11-13)

성서읽기표는

1. 매번 읽기전에 '주의 기도', '성모송' 으로 시작기도를, 마칠때는 '영광송' 을 바칩니다.
2. 매일 꾸준히 읽습니다.
(읽은 날을 Check를 합니다.)
3.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 를 만들어 바칩니다.

이달의 성서 읽기표

날짜	요일	장 절	check
11/15	목	고린도 1서 1장	
16	금	2장	
17	토	3장	
18	일	4장	
19	월	5장	
20	화	6장	
21	수	7장	
22	목	8장	
23	금	9장	
24	토	10장	
25	일	11장	
26	월	12장	
27	화	13장	
28	수	14장	
29	목	15장	
30	금	16장	
12/1	토	고린도 2서 1장	
2	일	2장	
3	월	3장	
4	화	4장	
5	수	5장	
6	목	6장	
7	금	7장	
8	토	8장	
9	일	9장	
10	월	10장	
11	화	11장	
12	수	12장	
13	목	13장	
14	금	.	

매일 읽고 읽은 날은 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

“평화, 평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9월 15일 발현을 통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께서 9월 15일 발현산에서 이반에게 발현하셨는데 이번처럼 성모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는 것을 전에는 못보았다고 합니다. 이반이 말하기를 성모님은 이번 미국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것에 대해 애통해 하시며 여느 때처럼 두 손을 펼치시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평화, 평화, 평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와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워싱턴 D.C. 에 있는 성당에서의 추도 기도회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은 “나는 하느님께서 아직도 현존하신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날, 성 패트릭 성당에서 들었던 “메주고리에가 너희에게 주는 증표이다.” 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안에 살기를 원한다.” 고 하셨습니다. 증인 마리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성모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며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는 것입니다.

(12) MEDJUGORJE



9월 11일은 온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인류사로 볼 때 어두운 날이며, 인간 존엄성이 끔찍하게 짓밟혔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며 특히 이번 8월 2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메주고리에 9월호 참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우리는 성모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 에서나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청하십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현실화”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회개라고 청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며, 진실되게 변화되기를 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삶이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물질적인 것에 속박시키지 말고 하느님께로 구속 시켜라” 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모님께서 이미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들면 1996년 3월 25일 메시지에서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도록 결심하기를 원한다. 소비중심의 이 시기에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며 소중한 것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다. 다시 부탁하지만, 자녀들아, 하느님을 너희들의 삶에서 제일 첫번째로 하여라. 사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며, 자유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너희 자신을 맡기어라. 너희 영혼의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하여라. 자녀들아, 이시간 너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부활을 통해 피어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또한 너희의 삶이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 마지막 이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이러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으로부터 멀어져가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류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까지 물질화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하느님이 아닌 물질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눈물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삶은 한송이의 꽃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진실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얼마

나 짧은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근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할 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있는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며 도와주려고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현존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왜 너희에게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6/25/91>



“TV와 라디오를 끄고 하느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묵상, 기도, 성서읽기,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찰 것이다.” <12/13/84>

우리 모두 그 어느 때 보다 TV를 보는 대신 예수님의 성심에 대하여 묵상합시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 악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보잘것 없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 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모님께서는 “너희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모님께서는 이번 참사로 인한 모든 고통을 어머니로서의 성심 안에서 감내하고 계십니다. **M**

< 번역 : 평화의 모후센터 U.S.A >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라”

2001년 10월 15일 '메주고리에 리포트' 에서 발췌

지난 달 9월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라”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전에도 여러번 하신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9월 11일의 참사가 있는 후 이기에 이 말씀이 더욱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진다.

테러리스트의 계획이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노출되었는데 그들은 소단위의 그룹이 테러리스트로서의 훈련을 받은 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테러를 행하려고 준비하며, 이 얼골없는 테러 집단은 무고한 우리를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공포를 조성하고 “전쟁과 증오심”을 자극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적 사탄이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지난 20년간 우리의 어머니를 보내시어 평화를 위한 계획을 행하셨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수백만 명의 자녀들을 메주고리에로 부르시어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으며 성모님은 우리를 각자의 집으로 보내시어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작은 세포” 로써 온세계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주어야 하며 각자가 평화로운 삶을 삶으로서 “모든 마음에 평화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전달하기 위한 무기를 주시기 위해 지칠 줄 모르며 일해 오셨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 단식, 변화, 그리고 회개**이다. 이 평화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1) 기도 : “나는 특히 전쟁과 증오심을 부추기는 이 시기에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청한다.” 기도는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의 기본이었다. “기도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하느님만이 평화이므로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가면 너희 마음 안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

다.” 진실되고 지속적인 하느님과 대화 없이 우리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체를 통하여 그로부터 생명과 양식을 얻어야 한다. 특히 묵주의 기도를 하여야 한다.

2) 단식 :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새로워지며 기도하고 단식하므로써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매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빵과 물로 단식하라고 청하셨다. “기도와 단식만이 전쟁도 멈출 수 있다.” 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뒤로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식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학교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로 이끌어 준다. 우리 모두 이 가장 중요한 무기를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

3) 변화 : “나는 너희가 새로워지라고 부른다.” 성모님은 지치심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성모님께서 거룩한 것이 우리 생활의 일과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아신다. 매일 우리는 우리와 연관된 것에서 떠나 하느님을 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평화의 통로이다.

4) 회개 : 화해를 통하여 우린 평화를 얻는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 확인하기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신앙적인 준비와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평화와 강렬한 영적 위로로 인한 양심의 평온을 갖는다.” 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때 우리 마음에 온다. 우리가 평화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움은 적의 무기이며, 사랑은 성모님의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부르심에 깨어나
온 세계에 평화를 전합시다 !!



5) 평화 : 기도, 회개, 단식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평화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평화는 두려움을 없앤다. 성모님께서 “두려워 마라, 기도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증오심도 없다”고 하셨다. 두려움이 없어야 평화를 증거할 수 있으며 증오심이 없으면 오직 사랑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된다. 평화를 지닌 사람은 사랑하고 세상을 포용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절망으로부터 오는 죄악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땐 하느님을 안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평화를 지니는 자 되려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미워해서도 안된다. 미움은 적의 무기이며 사랑은 성모님의 무기이다.

“사랑을 통하여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을 좋은 것으로 돌릴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가진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축복과 지금 이시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 하신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메주고리예의 성모님을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안에서 또는 우리의 기도나 생각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웃을 축복 하므로써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 평화를 만들고 축복해주며,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들 중에 성모님의 부름에 대해 부동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된 삶으로서 성모님의 부름에 우리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모님의 평화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선이 악보다 더 강하며 성모님의 계획이 악의 계획보다 더 강하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부르심에 깨어나 온세계에 평화를 전합시다. **M**

- 번역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마리아 에스페란자의 예언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

전 세계에 신비적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예수님과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베네주엘라의 마리아 에스페란자씨는 지난 9월 11일에 뉴욕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하여 미국이 즉각적인 전쟁행위로 대처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마리아 에스페란자는 주교관의 인준을 받은 예언자이다.

이 예언자는 “만약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최악의 실수로써 큰 재난을 초래할 것이며, 사고시의 악화를 진정시키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혜로운 자세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전쟁은 경솔한 짓이며 결코 섣부른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말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참사를 예언한 그녀의 말이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그녀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개의 외부의 힘이 같이 힘을 합쳐 미국을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도전은 심각하며 미국의 내부 뿐

만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5일에 마리아가 받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 했는데 커다란 사건이 3주 내지 3개월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뉴욕의 참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그 세째 주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미국은 전쟁 대신 묵주의 기도 15단과 매일미사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도

와 묵상,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하면 미국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확실히 상처는 큰 것이나 같은 시간에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께 기도로 의탁할 때 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며, 인내로 움직여야 한다. 기도는 이 모든 문제점들에 영향을 줄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004년 까지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2004년 중반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것 처럼 보이나 그 때 까지는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말하기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부르짖으며 이 일은 온 세계에 교훈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반드시 주님께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미국 뿐아니라 온 세계를 진동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진동은 폭력적인 것은 아니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온 세계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최근의 사태가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복제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일부는 그 이유도 있지만 이 참사는 일반적인 부도덕성과 영적인 결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 말하기를 이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하느님의 시각을 통해서 보아야 하며, 죄의 용서와 용기를 청하는 기도와 회개가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M**

< 번역 : 평화의 모후센터 U.S.A >



(16) MEDJUGORJ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0월호와 11월호 합본을 내면서...

- 그레이트넥 성당 남 미카엘라 -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75년도에 영세를 받았으나 혼자하는 신앙생활이었기에 성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지오를 하다 같은 단원이었던 남편과 결혼 후, 열심히 시댁 때문에 성모님도 알고 성령 체험도 했으나 그래도 성모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저와는 달리 온 집안이 열심히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은 특히 성모님께 대한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주교회에 대한 잘못된 점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지나친 신심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3년 전, 남편이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 온 후, 우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순례 후에는 더욱 더 성모님께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을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이민생활에 더구나 아이는 넷이나 되니 남보다 몇 배는 더 일하며 살아야 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만 하는 남편에 대하여 저와 아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살 일에 대한 걱정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나 성모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저와 아이들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항상 마음이 상해서 끝나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도 메주고리예를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성모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왜 꼭 그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며, 그럼 메주고리예를 못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하면서, 다른 곳은 다 가도 메주고리예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메주고리예를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기더니 잠시도 못가다릴것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꼭 가야한다는 생각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밤 1시

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주고리에 순례를 안내하는 분에게 전화를 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순례를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생각하니 제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 하니깐 “당연한 변화야, 당신을 메주고리로 보내달라고 내가 묵주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 성모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 이라고 하며 이런 일이 생길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도 마음이 바뀌기를 열두 번은 더했을겁니다. 여름 장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미루려고 하니깐 양손의 열 손가락에 심한 알러지가 생기며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성모님이 꼭 오라고 하시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메주고리에 순례 후 손의 알러지는 다 낫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함께 순례할 분의 전화를 받으며 제가 3일 후에는 메주고리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봐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과는 다른 힘에 이끌려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더구나 바쁜 금요일날 가게에는 일할 사람도 부족한 상태에서 가야 한다니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듯이 직장도 가지않고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재촉하는 남편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도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카엘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와. 우리의 어머니이신데 당신을 만나러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셔 우리는 그저 “네”라고 대답만 하면 돼, 그순간부터 성모님이 당신의 치마자락에 모든 것을 감싸주고 계셔. 성모님이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고 하시잖아.”라고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을 듣는순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알뜰고 미워지면서 공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말

성모님은 나의 친정어머니이시고
 객지에서 고생하던 딸이 당신을 만나러 온다기에
 두 손 모아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메주고리에 가는것을 포기하고싶은 충동이 강하게 났으나 함께가는 일행이 두 분이 있었고 이미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 마음속의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왜 꼭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일행인 두 분은 피곤한 듯이 잠이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면서 내 자신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에 가기전에 단식과 9일 기도를 열심히 하던 남편이 특히, 성모님이 묵주기도 15단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열린 묵주를 꺼내서 이왕 가게된 것이니 준비가 안됐어도 용서해주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환희와 고통의 신비를 끝냈을 때는 너무 졸려워서 못할것 같았으나 그래도 성모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열린 영광의 신비를 하고 자자 하며, 다시 묵주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엄청난 장미향이 났습니다. 누가 향수병을 깨뜨렸나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 기내는 어두웠고 모두 잠을 자는듯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다시 묵주기도를 할 때,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현존하심을 알려 주실때는 아름다운 장미 향기가 난다고 남편이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순간 성모님은 나의 친정 어머니이시고 객지에서 고생하던 딸이 어머니를 만나러 온다기에 사랑하는 딸을 만날때만을 두손모아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한없이 깊고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나도모르게 한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9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고 받는것인지 모르고 자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흠뻑받고 사는 딸인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의 장미향

기는 제 가슴에 깊이 새겨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눈물은 순례 동안에도 내내 울고다녀서 울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 엄마의 사랑을 못받고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갖게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마음 깊이 평화를 느끼며 기쁨과 함께 어머니의 품속에서 꼭 쉬는 듯이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온 나의 삶 속에서 성모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가를 알게되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그렇게 첫번째 순례를 다녀온 후, 한달 반 만에 다시 또 메주고리를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였지만 메주고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알기에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메주고리를 몇 번 더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를 갈때마다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에 남편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자꾸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바꾼다는 것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할때이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변화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속 깊이 들려오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14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쉬어야 하는 일을 시작으로 저희 가정에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그 일년 반 동안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정신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다시 또 메주고리를 가겠다고 하여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가느냐고 하며 못가게 말렸더니 몹시 서운해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메주고리를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던 남편은 결국 메주고리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건강도 회복하였고 자신에 대한 성모

성모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온전히 의탁하고 봉헌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님의 부르심에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역시도 성모님의 현존하심과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중요한 일이며 죄에 대한 분별조차 희박해지고 모든 것이 물질만능주의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느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기에 메주고리에 순례가 추억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만들기로 의견일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웨인 와이블의 저서 '메주고리에'를 번역하신 김철석 교수님과 이옥원 자매님의 도움으로 몇 달 동안의 준비를 하였으며, 본당의 김한기 신부님께서도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격려 말씀과 함께 지도 신부님이 되어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시어 2001년 1월에 제 1호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김한기 신부님께서는 교회의 정식 인준이 안된 것에 대하여 성직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선두에 나서주신 것입니다. 다시한번 신부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식지에 대한 일은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아이들중 23살의 큰아들과 20살의 큰딸, 17살의 작은딸은 (넷째는 6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것 아니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걱정과 함께 심하게 반발하면서 메주고리에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



를 돌리며 일어나버린곤 하였습니다. 결국은 비경제적인 일을 하는 엄마 아빠를 못믿겠다고 하며 각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여 우리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후 메주고리에를 다녀온 아이들은 우리를 이해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보면 미안하고 불쌍한 생각에 가슴이 아팠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편집하고 인쇄가 끝나면 포장해서 미주 전체와 캐나다 까지 주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보냈으며 지금은 한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곳 미국의 우체국에서는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인당 소포물이 15개로 제한이 되다보니 몇 백개씩 가져가는 저희들의 물량을 싫어했으며 결국은 자기들의 우체국으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많은 물량은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를 만들면서 부터는 남편이나 저는 개인적인 일은 도무지 할 수 없었고 매 달 만 부씩 찍던 소식지를 7천 부로 줄였지만 비용이 한 달에 몇 천불씩 들고 발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후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개인 비용을 쓰고 있는 처지이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상황이라 발송을 다른 곳에 부탁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차에 가득 싣고서 이곳 저곳의 우체국을 돌아다니며 우체국 직원의 눈치를 보가며 부치고 있는 실정인데 요즘은 9,11 테러사건 이후로 발송하는데 일일이 주소를 확인하는 등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아시는 분들은 2 달이나 3달에 한번씩 내는 것이 어떠냐

성모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이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이심을
모든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고 조연도 해 주시지만 저희들의 상황과는 달리 소식지는 매 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떤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앞서 가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매 월 소식지를 발행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그저 성모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기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반응은 무척 좋았으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보시고 격려의 전화와 편지를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소식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의 모든 어려



움을 성모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은 더욱 더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례 안내를 하면서 남는 이익금도 소식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8월에 순례가 없었고 9월에는 테러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었으며 10월에는 20명의 일행과 갔다 왔지만 11월의 순례는 또 취소되는 어려움이 연속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동분서주하던 남편은 과로로 당뇨의 치수가 500이 넘게 올라가 한때는 몹시 아픈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10월호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11월호와 합본으로 내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모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할 길을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생일선물로 받은 돈을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써달라고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식지 발행을 계속하여줄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라고 온전히 의탁하고 모든것을 봉헌하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능력있는 많은 성모님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시어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기쁨의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잊지말라고 하시며 함께 하고 계신다고 격려해주시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

니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상황을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과 저는 성모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메주고리에 소식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늘나라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이 소식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기때문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을 삶의 제일 첫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어서, 성모



로사리오

남께서는 죄악이 가득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이심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고 하셨던 순례 지도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정화의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두가지 축복이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하며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다섯가지 무기를 생활화 하며 우리의 영육을 무장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만방에 동터울 새 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사람이 있는 곳은 세계 어디든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청하며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께 어떠한 처지에서든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모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10월 25일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들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평화와 기쁨을 증거라하고 선택 되었단다. 평화가 없는 곳에 너희가 기도를 하면 평화가 오리라.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는 너희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기도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생활화하는 너희들 각자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예수님, 성모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구슬 한 알에
희개와 보속을 담아 봅니다.

희망의 구슬 한 알에
환희와 사랑을 담아 봅니다.

영롱하게 맑아지는
정화된 영혼으로
우리는
어머니 당신앞에
풍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알알이 영글어가는
사랑과 환희로
우리는
어머니 당신안에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나는 진주알로
천상의 어머니
당신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바람과 함께 장미향기가 내 앞을 스칠때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무한한 행복감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님의 향기

- 벤쿠버 전해원 이르비나 -

나는 청소년기를 무척 힘들게 보내고 메주고리에에 가기 전까지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에 대학에 들어갈 예정이었기에 나는 더욱 더 초조했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주고리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의 희망은 성모님께 매달리는 수 밖에 없다고 느꼈고 그리고 메주고리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메주고리에에 도착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Youth Festival로 메주고리에에는 세계각국에서 온 청년들과 성직자들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 뒤의 광장에는 제대와 각종 언어별로 앉을 수 있는 대광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아침 9시부터 아침기도를 시작으로 Festival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여러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 또 목격증인들의 강연이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이어졌고 오후 6시부터는 목주기도를 드리며 6시 45분의 성모님의 발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시 부터는 저녁미사가 이어졌고 미사 이후에는 성체거동이나 성체조배, 십자가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햇볕아래서도 괴로워하기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저마다 통역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것이 성모님과 하느님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모든 불신을 버리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그리고 수녀님들, 신부님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나는 자꾸 울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내 얼굴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5일째 되던 날, 나는 성모님의 장미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목주기도를 드리며 성모님의 발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장미향기가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무한한 행복감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십자가 조배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대 앞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 고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온갖 죄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고상을 앞에두고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일 까지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나는 이런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너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겠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고, 나는 순간 “아빠” 하고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메주고리에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두려워 졌습니다. 가족들이 그림기도 했지만 돌아가면 또 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까 무서워졌고, 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모님께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서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모님께서 나를 메주고리에로 초대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를 떠나게 되더라도 성모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벤쿠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탄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 빠질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메주고리를 다녀와서

- 장수남 베로니카 / 송탄본당 -

메주고리로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이 ‘기도를 배우는 학교’ 라는 말을 들었기에 떠나기 전 우리 일행은 개인적으로 순례를 위한 지향을 두고, 많은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 역시 예수님과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메주고리에서 순례하는 동안 거듭나는 주님과 성모님의 딸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 일행에게 깊은 믿음과 확신을 얻게 해 주실것을 간구 드렸습니다. 배에서 내려 메주고리로 향해 가는 동안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맑은 공기 그리고 작고 예쁜 집들 ... ,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메주고리에 도착할 무렵 버스 안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몇몇 자매님들과 함께 해가 성체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스가 메주고리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작고 소박하고 조용한 마을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이거나 하는 알지못할 감동이 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마침 성모님 발현 기념일을 맞는 기간동안에 순례를 하게되어 더욱 큰 은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날 오후, 우리는 야외미사 참례가 있었습니다. 15개 국어로 복음이 낭독되었고, 제대 둘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신부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순백의 제의를 입으신 신부님들의 거룩한 모습에 우리는 마치 천상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 같고 미사후, 성체성시 시간은 정말 큰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그 안에 성가가 흐르고 선견자와 통역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매일 오전에

는 한국인 순례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렸는데, 한국인 순례자들이 많아서 인지 전혀 낯선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사때 마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기쁨에 넘치는 성령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 중, 우리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발현산에 갔었습니다. 그리 높지도 가파르지도 않은 산이고 하얀 빛을 띄고있는 크고 작은 고르지 못한 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서 속에서나 상상했던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발현산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 저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소망을 적은 종이들을 돌밑에 묻어두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일행들도 각자 지향을 두고 불러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발현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 발현산에서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발현산으로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로 발현산은 길목까지 가득했습니다. 알미늄 십자가를 중심으로 순례객들이 빙둘러 서있고 우리는 발디딜 틈도 없는 사이를 겨우 비집고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음때문에 나는 순례객들 발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즐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나 조용했고 순간 어떤 느낌을 받고 나도 모르게 일어섰을 때, 섬광같은 파장이 십자가 둘레에 있었습니다. 그 파장은 어떤 물체에 번개가 소리없이 부딪치는 그런 순간과 같았습니다. 주위는 온통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선견자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 파장이 일어났을 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체험과 확신을 주신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산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 처마다 모든 것을 봉헌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힘겹게 오르는 병자도 있었고 힘들어 보였지만 기쁘게 웃으며 산을 오르는 나이드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았

메주고리에는 기도하는 학교일 수 밖에 없는 곳이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습니다. 서로 당겨주고 붙들어 주기도 하면서 여러 나라 순례자들이 몸을 부딪치며 십자가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정상에서는 신부님들께서 모두에게 안수를 주셨고 우리는 거대한 십자가 아래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간절한 기도 속에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봉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정말 '기도하는 학교' 일 수 밖에 없는 곳이고 그 안에 머무는 동안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특히 성모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감사한 날들이었고 성모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자기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과 우리가 받은 깊은 믿음과 은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성찰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었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순례자들만이라도 성모님 메시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보답드리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메주고리예에서 받은 은총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은총과 기쁨, 그리고 감동의 시간들, 그 이후 나는 성모님의 거듭난 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미사의 은혜와 가장 값진 보물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내게 기쁨으로 오심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쁘게 생활하고 있고 아침을 열고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완벽하게 봉헌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서 대신하고 있으며 메

주고리예를 함께 순례했던 우리 일행은 돌아와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솔자 요한 보스코 (서울 마리아 센터) 형제님과 최요셉 보좌 신부님을 비롯하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때를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드리고 성체 조배를 하며 영성적인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의 만남은 기쁘고 소중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인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날 때마다 메주고리예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지속될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두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함께 순례했던 소녀 보나 때문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보나가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보다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나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총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순례했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간직되기를 기도합니다. **M**



웨인 와이블과 함께 하는

치유와 은혜의 밤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초대 받았으니
응답하여라.



주최 :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일 시 : 2001년 12월 18일(토) 오후 8시 30분 / 미사, 강연, 성체강복
2001년 12월 9일(일) 오후 1시 / 강연
Guest : 김철석 (메주고리에 번역자)
- 장 소 :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6003 Buford Hwy., Doraville, GA 30340
Tel. (770)455-1380



강사 웨인 와이블

개신교 신자이며 신문기자였던 웨인 와이블은 성모님의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후 1985년 부터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천주교 뿐만아니라 개신교 에서도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주기도를 전하여 외적, 내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저서 : 메주고리에 / 선교사명 / 메주고리에 추수

한국의 날이 제정 되었습니다.

부산의 안부길 베네딕도 형제의 기부금으로 제작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동상이 성모님 탄신일인 지난 9월 8일 발현산의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발현하신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이 장소에 성모님을 모실것을 결정한 후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기를 원했으나 스펀토잘 신부님은 한국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추석날인 9월 20일 그곳에서 기도회를 주도하신 스펀토잘 신부님께서서는 분단된 한국을 봉헌하시며 성모님의 중재를 청하시고 이 날을 “메주고리에 한국의 날”로 선포하셨으며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 한달동안

지난 9월 한달동안 140,000여의 성체가 순례자들에게 영하여 졌으며 세계 각 처로부터 온 3,676명의 사제들이 합동으로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이리네이 빌릭 주교님과 파푸아뉴기니의 헤르만 웨이 주교님이 메주고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일요일 브랑코 라도 신부님께서 루카 파블로비치 교구장님과 합동으로 집전하신 미사에서 본당 주임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소식지

매 월 발행되고 있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소식지에 영문을 포함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매달 영문 페이지를 신고자 하오니 번역을 도와주실 봉사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31-367-6191)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발행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특별히 10월과 11월호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합본으로 발행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메주고리에 소식지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선물로 받으신 금액을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써달라고 보내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가야할 길을 인도해 주시길 청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 자매님의 편지를 받고 성모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주신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자매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오며 열심히 노력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8, 9, 10월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후원해주신 분들

캘리포니아 : 김철석 부부, 김상배 부부, 임실비아, 장데레사, **아틀란타** : 아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노인기도회, 오수산나, 정발바라, **뉴욕** : 이로서, 운멜라니오, 임베로니카, 그린포인트 한인성당의 꾸리아, 퀸즈성당 성령기도회, **필라델피아** : 이스테파노 부부, **달라스** : 송모니카, 이마리아, **디트로이트** : 윤막달레나, **텍사스** : 이비오, **콜로라도** : 이세실리아, 이아일린, **서울** : 이남인 교수, **미네소타** : 최종권, **밴쿠버** : 김말가리다. **미조리** : 김벨라뎃다
제8차 메주고리에 순례단 일동

성탄미사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송년미사를 메주고리에의 성 야곱 성당에서 드리는

로마와 메주고리에 성탄 및 신년 피정 순례

12월 22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10박 11일)

- 12월 23일(일) JFK, NY출발
24일(월) 크로아티아의 Split를 경유하여 메주고리에 도착,
성 야고버 성당에서 성탄 자시미사.
25일(화) 발현산 등정과 청십자가 방문, 성 야고버 성당에서 성탄 자시미사.
26일(수) 십자가산 등정(십자가의 길 14처 기도),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27일(목) 목격중인 비스카와의 만남,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28일(금)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29일(토) 요조 신부님의 치유예절 참석, 성 야고버 성당 저녁 예절
30일(일) 메주고리에 출발, Split항에 도착 1700년된 대성당에서 미사 봉헌
선박편으로 아드리아 해를 건너서.
31일(월) Italy의 양코나에 도착 성모님 생가 방문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코 기념성당 등 방문, 미사참례, 로마에 도착
- 2002년
1월1일(화) 까따콤베 지하 묘지, 성 십자가 성당 및 4대 성전 방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송년미사 참례.
2일(수) 로마 출발, 미국 도착.

지도 신부 : 이영창 신부 (예수회 성모공동체 지도신부)

신청 마감 : 2001년 11월 23일

순례 인원 : 30명 선착순

순례 경비 : US \$1,790 NY, JFK 출발 기준 (비자신청 수수료 별도)

한국여권 소지자는 보스니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권과 여권사진 1매, 영주권 사본 및 신청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 / 남 그레고리오(Tel. 631-367-6191)

제8회 순례를 마치고

평화의 모후 센터의 제 8차 순례는 한국에서 오신 왕영수 신부님을 모시고 최데레사 자매님의 성령 가득한 음악봉사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인 92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한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왕신부님께서 “하늘의 문” 이신 성모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것은 하느님께 선택되었음에도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 지소서”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자신을 봉헌하신 성모님의 희생과 수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들이 메주고리에 성모성지 순례를 통하여 올바른 성모신심을 배워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성모님이 20년동안 이곳에 발현하고 계시는 참 뜻있것이라고 하시며 순례기간 내내 성모신심 특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왕신부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 그레고리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편집인-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주문량

- | | |
|---------------------------------------|--------------|
| (1) 25부 <후원금 \$25 + 우송료 \$5> | 합계 \$30 () |
| (2) 50부 <후원금 \$50 + 우송료 \$5> | 합계 \$55 () |
| (3) 100부 <후원금 \$100 + 우송료 \$10> | 합계 \$110 () |

개인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가입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Fax로 정확한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